

눈으로 만든 오두막 혼야라도

이 구조물은 지역 방언으로 혼야라도라고 합니다. 전통적으로 이 눈 오두막은 ‘도리오이(새쫓기)’라는 겨울행사를 위해 만들어집니다.

도리오이는 도카마치의 농촌마을에서 중요한 전통행사입니다. 전통적으로 1월 14일에 열리는 이 풍습은 농작물에 해를 입히는 새를 쫓아내기 위한 의식입니다. 아이들은 새쫓는 노래를 부르며 마을을 돌면서 나무 도막을 두드립니다. 마을 주민들은 그 보답으로 아이들에게 떡이나 과자를 나누어 줍니다. 이후 아이들은 혼야라도 안에서 작은 숯불 난로로 몸을 녹이며 늦은 밤까지 즐겁게 놉니다.

이와 유사한 눈 오두막은 일본의 다른 다설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, ‘가마쿠라’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혼야라도라는 이름은 눈에서 새를 쫓아낼 때 반복하는 구호인 ‘혼야라’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. 대략적으로 번역하면 ‘어이어이 저리 가 오두막’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.

지금은 농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희미해졌지만, 도리오이와 혼야라도는 도카마치의 겨울 풍경을 대표하는 전통으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으며, 주민들이 눈을 즐기고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계기 중 하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